

가구, 장난감,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

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구, 장난감(모형완구, 미술공예 등), 발광 다이오드(LED) 등기구 등 1,005개 제품에 대해 7~9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.

- 국가기술표준원은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 품목*에 대하여 안정성조사를 실시한 결과, 가구 등 적발된 223개 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(51개) 또는 권고(172개)하였음.

* 안전기준 부적합률과 사고빈도가 높거나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지정 제품으로 어린이제품 19개(유모차 등), 전기용품 19개(전기오븐기 등), 생활용품 12개(실내용 바닥재 등)가 있음.

- 유해화학물질, 구조 안전성,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최종결함에 해당하는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, 국가통합인증(KC)을 취소함.
- KC표시, 제조연월, 사용연령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중결함 또는 경결함에 해당하는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(개선조치 포함)함.

[조사 개요]

- ▶ 조사기간 : '20.7 ~ 9월
- ▶ 조사대상 : (어린이) 유아동 섬유제품, 완구, 어린이용 안경테 등 9품목 437개 제품
(전기) LED등기구, 직류전원장치 등 18품목 431개 제품
(생활) 가구, 실내용바닥재 등 10품목 137개 제품
- ▶ 주요 시험항목 : 유해 화학물질, 제품 내구성, 감전보호, 온도시험 등
- ▶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
 - 납(기준치 : 90mg/kg(페인트 및 표면코팅), 300mg/kg(그외)) : 피부염·각막염·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
 - 카드뮴(기준치 : 75mg/kg) : 신장,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
 - 프탈레이트계 가소제(기준치 : 총합0.1% 이하) : 노출될 경우 간,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
 - 톨루엔(기준치 : 0.08mg/m³.h) : 현기증, 두통, 메스꺼움 및 식욕부진 유발 가능

- 수거 등의 명령을 처분한 51개 제품(생활용품 16개, 어린이제품 21개, 전기용품 14개)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.

생활용품(가구, 실내용 바닥재 등) 16개	
가구류 (8개 서랍장)	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(전도, 顛倒) 구조로 되어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 및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(0.08mg/m ³ ·h이하)를 1.7배 초과한 1개 제품
실내용 바닥재 (3개 제품)	간,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(1,000ppm)와 피부염,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(90ppm)를 각각 182배, 3.5배씩 초과한 1개 제품 등
기타 생활용품 (5개 제품)	자동온도조절기능이 없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열성형기 1개,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1개 및 레이저등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1개 등
어린이제품(장난감, 유아용 의자 등) 21개	
완구/의자/침대 등 (18개 제품)	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400배 초과한 모형 완구 3개 및 280배 초과한 유아용 의자 1개, 납 기준치를 최대 50배 초과한 유아용 침대 1개 및 38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1개 등
아동용 의류 등 (3개 제품)	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, 잠옷 등 2개 및 안전벨트 기준을 위반한 유아용 의자 1개
전기용품(LED등기구, 직류전원장치 등) 14개	
감전보호 미흡 (5개 제품)	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인해 감전 우려가 있는 발광다이오드(LED) 등기구 5개
화재/절연 (5개 제품)	온도기준치(100℃)를 52~99℃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가정용 소형변압기 2개, 절연거리를 미준수한 직류전원장치 3개
기기손상 등 (4개 제품)	내부 부품간 거리가 기준치보다 짧아 기기손상, 화재 등의 우려가 있는 직류전원장치(3개), LED등기구(1개) 등 4개

- 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원천적인 유통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(www.safetykorea.kr) 및 행복드림(www.consumer.go.kr)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,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글로벌리콜포털(globalrecalls.oecd.org)에도 등록하였음.
-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도 공동 연계하여 관련 제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, 이들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와 유통 차단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.
- 또한,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결함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줄 것과, 결함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, 교환,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을 권고
- 국표원은 “어린이,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위해 우려가 높고, 사고가 많아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가 시급한 50대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”이라고 밝힘.

◆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0. 09. 23.)